

주일에배  
 오전(1부, 노량진) 6시  
 오전(2부) 7시  
 오전(3부) 10시  
 오후(4부) 3시  
 수요일에배 저녁 8시 30분  
 서울 교회 02)533-9191  
 장소: 강서구 공항대로 376 KBS스포츠월드



주일에배  
 1부(오전) 7시  
 2부(오전) 10시  
 3부(오후) 3시  
 수요일에배 저녁 8시 30분  
 인천 교회 032)763-9191  
 장소: 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대한예수교장로회 예수중심교회

2025년 9월 28일 (제 1325 호)

(서울)서울시 용산구 용산우체국 사서함 37호 Tel. 02)533-9191 Fax. 02)592-9191 (인천)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Tel. 032)763-9191 Fax. 032)575-5730 http://www.jcc.tv(철야 주일 예배 위성 및 인터넷 생방송)



봉우걸럼

## 다양성을 인정하자

여기서 장성 기도원을 간다 하자. 목적지는 장성에 있는 우리 기도원이다. 그런데 거기까지 가는 방법은 다양하다. 자동차로 갈 수도 있고, 기차로 갈 수도 있고, 버스로 갈 수도 있고, 광주까지 비행기를 타고 갈 수도 있고, 라이딩을 즐기는 사람은 며칠에 걸쳐 자전거를 타고 갈 수도 있다. 이걸 두고 누가 옳고, 누가 그르다 할 수 있을까? 목적은 같으나 방법이 다를 뿐, 틀린 사람은 없다.

성경도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고전12:4~7)고 말씀하지 않나? 우리는 다양성을 인정하는 것에 인색하다. 무조건 나와 다르면 ‘틀리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짙다. 그러다 보니 서로를 적대시키고, 터부시하게 된다.

목적이 같으나 방법은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9장 40절에서 제자들이 누군가가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보고,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니 하지 말라’ 했다고 말씀드리자, 예수님은 ‘우리를 해치지 않는 자는 우리 편’이라고 말씀하셨다. “얘들아, 방법이나 속속은 달라도 목적이 같다면 다 수용하라.”는 뜻이다.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고전9:20~21). 바울은 각 대상의 배경과 특성에 맞게 전도 방식을 조절했다. 그의 목적은 하나, 최대한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었다. 이는 그가 복음을 전하는 목적은 하나이나,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법은 대상에 따라 달랐음을 보여준다.

다양성을 인정하자. 넓은 그릇이 되어 품을 수 있는 아량과 포용력을 키워보자.

# 비바람이 불어도 이 길을 가리라

엘살바도르(EI Salvador) 집회의 대미를 장식할 쏘아뿔고(Soyapango) 집회 둘째 날 아침, 하늘은 완전 푸르게 열려 있었다. 첫날 집회의 미비점 수정,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지는 목사님의 격려, 끝으로 이번 엘살바도르 집회 준비과정에서의 시행착오를 거울삼아 앞으로 준비할 온두라스(Honduras), 니카라과(Nicaragua) 집회에 대한 세세한 지침들을 짚어보는 아침 회의가 약간은 무거운 분위기 속에 진행되었다. 이현숙 선교사나 왈테르(Walter) 목사로서는 이 먼 나라에 목사님을 모셨는데 기대에 어긋나는 결과를 빚는 데 대해 면목 없어 했다. 특히 왈테르 목사는 표정이 아주 어두웠다. 자신이 주관한 집회였기에 하루하루가 바

력했다. 목사님의 철학, 곧 ‘돈보다 사람을 잃지 말아야 한다’는 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자리였다. 목사님은 언제나 한결같이 이 원칙을 견지하신다. 가나(Ghana) 첫 집회인 타코라디(Takoradi) 때도 그러했고, 러시아(Russia) 칼리닌그라드(Kaliningrad) 집회 때도 그러하셨다. 집회를 준비한 이들이 집회 비용을 부풀려 돈을 더 뜯어내려고 눈에 뻘히 보이는 거짓말을 할 때가 있었다. 우리는 세목을 들이대고 따지려 했지만, 목사님은 사도 바울이 알고도 속아주는 것이 낫지 아니하나(고전6:7)고 했듯이, 항상 우리를 지지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어쨌든 그를 통해 이 나라에 복음을 전할 수 있지 않았느냐? 그를 버리면 복음

우산으로 가득 찼다. 목사님은 비를 멈추기 위해 함께 기도하자고 말씀하시고, 기도했으면 기도한 것을 믿고 우산을 던져 버려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그 말씀에 따르는 자들도 있었지만, 끝내 우산을 쓰고 있는 자들도 있었다. 그때 목사님은 설교를 중단하시고, 갑자기 상의를 훌훌 벗고 넥타이를 푸시더니 허리띠를 단단히 정비하신 후 단상 아래로 성큼성큼 내려가셨다. 그 모습이 마치 슬로비디오처럼 펼쳐졌다. 그 장면은 마치 혈혈단신으로 진검승부에 나서고 고독한 장수의 모습처럼 보였다. 목사님은 쏟아지는 빗속으로 걸어 내려가셔서 단상 앞으로 몰려드는 성도들을 일일이 안수하시기 시작했다. 귀신들이 소리를 지르며 요동했고, 곳곳에서 성령이



2025 엘살바도르 쏘아뿔고 집회 광경

방식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목사님은 그를 질책하려는 이 선교사를 제지하시며 왈테르 목사를 격려하셨다. “지나간 일은 왈가왈부할 필요 없다. 우리는 오늘 최선을 다해야 하고, 앞으로 준비할 집회에 신경 써야 한다. 왈테르 목사는 이번 집회를 통해 경험이란 큰 자산을 얻었다. 나는 왈테르 목사를 믿는다. 이번 집회의 교훈을 가슴 판에 잘 새기면 된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철저한 점검과 확인이다. 선교 비용을 더 지원할 테니 온두라스와 니카라과 집회를 잘 준비하기 바란다.”



빗속에 탄 아래로 내려가 안수하시는 목사님

의 문이 닫힌다, 돈이야 다시 벌면 되지 만 사람을 잃으면 그가 부정의 나팔수가 되어 우리 앞길을 다 막아버린다. 돈 줄 수 있을 때가 좋은 줄 알아라.” 아침 회의를 마치고 모두가 심기일전하여 마지막 집회를 준비했다. 오후 5시, 어제보다 1시간 일찍 집회장으로 출발했다. 하늘은 잔뜩 찌푸려있었지만, 비는 내리지 않아 감사하는 마음이었다. 집회 세팅을 마치고, 목사님의 집회 영상을 보고, 찬양과 함께 집회가 시작되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그것도 아주 거세게. 도무지 멈출 기미는 보이지 않고 회중석은 각양각색



폭우가 쏟아졌다

임하여 방언이 터지며, ‘하나님이 이곳에 계신다. 비를 멈춘다’는 방언통역이 연이어 터져 나오는 등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다. 목사님은 그렇게 최선을 다하셨다. 비를 맞고 있는 성도들을 보며 단상 위에서 설교만 하고 있을 수 없었다고 하셨다. 엘살바도르의 잊을 수 없는 역사적 장면이었다. 이곳에 뿌린 눈물과 열정의 씨앗을 하나님은 반드시 기억하시고 앞으로 더 큰 역사로 응답하실 것을 확신한다. 기도해주신 모든 분께 주의 이름으로 감사를 드리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할렐루야! 한은택 목사



비가 내리는 가운데 성령으로 역사해주셨다

### 이초석 목사 주일설교(고후1:19~22)



# 하나님이 보증하셨는데 왜 두려워하느냐

보증이란 뜻은 지킬 보(保), 증거할, 책임질 증(證)으로, 어떤 사물이나 사람에 대하여 책임지고 틀림이 없음을 증명한다는 말입니다. 더욱이 우리 사회에서 보증을 선다는 것은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채무자를 대신하여 채무를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보증은 선불리 서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보증서는 자식은 낳지도 말라'는 옛말이 있죠? 보증 잘못 섰다가 패가망신하는 일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 하나님이 보증서는 사람이 태라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보증을 서셨습니다.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케 하시고 우리에게 기쁨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고후1:21~22).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에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엡1:13~14).

우리를 성령으로 인치셔서 보증해주셨습니다. 은행에 가서 보증서게 되면 도장을 찍든 사인을 해야 하지요? 하나님도 우리를 보증하시기 위해 성령으로 팡 도장을 찍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되었다는 표식입니다. '인을 친다'는 것은 '이것은 내 것이다'라는 뜻입니다. 바울이 살던 시대 당시 짐승을 사게 되면 뚝에 불도장을 찍었는데, '이것은 내 것이다, 아무도 건드리지 말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령으로 인을 치셨다고 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의 것으로 삼으셨다는 것이고, 따라서 아무도 우리를 못 건드리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 책임져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사43:1~2).

어디 물과 불 뿐이겠습니까? 바울의 단호한 고백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

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협이나 같이랴"(롬8:35), "우리가 담대히 가로되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히13:6). 대통령이 보증을 선다면, 왕이 보증을 선다면 누가 어찌했습니까? 하물며 하나님이 보증을 섰는데 무엇이 두려웠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건드리겠습니까? 사람들이 저더러 굉장히 담대하다고 합니다. 제가 배짱이 두둑하게 태어나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증하셨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나 당당하고, 담대한 것입니다. 책



총회장 이초석 목사

입지시 는 분

이 있는 데, 지키시는 분이 있 는데 왜 걱정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저만 보증을 서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도 똑같은 성령으로 보증하셨습니다. 보증을 서기 위해 도장을 한 번 찍으면 그 일이 다 해결될 때까지 책임이 따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마28:20) 말씀하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는 뜻은 바로 이것입니다.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엡4:30).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보증서는 유효하다는 말씀입니다. 사람의 서명은 흔들릴 수 있고, 세상의 보증은 파괴될 수 있으나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의 인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왜 당신이 가진 보증서가 효력이 없을까요? 왜 분명 하나님이 보증을 서주셨는데, 인생사가 두려울까요? 성령을 소멸해서 그런 겁니다. 당신이 보증서를 잃어버린 겁니다. 보증서가 사라지면 보증 효력이 없어집니다. 성령을 소멸했으니 하나님의 보증이 실효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누누이 "성령을 소멸치 말

라"고 강조하신 것입니다(살전5:19). 여러분,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에 보증이 되사"(엡1:13~14)라고 하셨습니다. 성령을 받으면 인생의 기업뿐 아니라 우리가 장차 하늘나라의 모든 유업을 받을 거라는 확실한 보증이 되는 겁니다. 저와 우리 선교 일행이 미국에 들어갈 때는 대면 입국심사를 받지 않습니다. 입국심사대에 줄을 서지 않고 자동출입국심사 무인단말기에 여권만 대면 통과합니다. 신원조회를 통과하여 대한민국이 보증하는 사람이라 판정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 죽어 하늘나라에 들어갈 때도 이러한 역사가 있을 것 입니다. 성령으

로 인치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왜 우리를 위해 보증을 서셨을까요? "너희가 아들인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갈4:6). 맞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아무나 보증서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모 자식 간이나 형제간에는 보증을 씁니다. 내 자식이고 내 형제니까. 하나님도 아무나 보증서시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을 성령을 보내사 보증서시는 것입니다. 내 새끼니까. 내가 보증이 되어 내 새끼가 마음껏 살고, 잘 된다면 어느 부모가 보증서는 것을 망설이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마7:11).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이 보증서신 사람들은 어찌 살아야 할까요? 성령을 받은 자는 어찌 살아야 할까요? 성경은 꼭 짚어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행1:8).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내세와 현세를 보증하셨는데, 우리도 보답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버지가 보증을 서줬다고 흥청망청 살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성령을 주사 보증하셨으니 우리는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복음전파에 힘을 쏟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되면,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의 권세가 함께 따르지 않습니까(요1:12)? 그 권세를 가지고 세상으로 가서 하나님이 살아 계심을,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길ियो 진리요 생명임을 전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처럼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찌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새 주께서 함께 역사하시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막16:17~20).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분이 우리 삶을 다 책임지시고,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며 인도하십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담대하게 세상을 살아봅시다. 늘 기도하여 성령충만을 입고, 우리에게 지시하신 일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봅시다.

## 성령을 받은 자는 하나님이 보증선 자다

그리고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데, 합부로 세상일에 보증서지 마십시오. 보증이란 한자를 잘 보면, 보증(保證)의 보(保)는 '사람 인(人)' 변에 '어리석을 때(呆)'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때(呆) 자를 분석해보면 '입 구(口)'와 '나무 목(木)'으로 되어 있어 결국 사람의 입으로 어리석은 일을 한 자는 때를 맞는다는 뜻입니다. 또 증(證)은 '말씀 언(言)' 변에 '오를 등(登)'으로 그 말에 올라탔다는 뜻이니, 결국 보증이란 어리석은 일에 올라타 때를 맞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저도 예전에 보증을 섰다가 엄청난 손해를 본 경험이 있습니다. 사업할 때 '이사장님', '회장님' 하며 영명이를 툭툭 쳐주니까 '좋아, 좋아, 알았어' 하다가 호되게 당했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는 사람으로 더불어 손을 잡지 말며 남의 빛에 보증이 되지 말라 만일 값을 것이 없으면 네 누운 침상도 빼앗길 것이라 네가 어찌 그리하겠느냐"(잠22:26~27). 천국에 이를 때까지 보증을 서주신 하나님의 뜻을 아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시다. 할렐루야!

:: 객원컬럼 ::

:: 영생에 이르는 길 ::

# 비판하지 말라

성경은 마태복음 7장 2절에서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경고합니다. 비판은 때로 자신을 점검하고 타인의 잘못을 바로잡는 도구가 되지만, 그 본질을 잃으면 오히려 관계를 해치고 공동체의 성장을 가로막는 독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비판의 의도와 방식, 그리고 비판이 남기는 여운을 점검해야 합니다. 비판이 아니라 사랑으로 우리를 이끄는 길이 무엇인지 고민하며, 서로의 다름을 존중하는 상생의 길을 찾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단순한 ‘비판 금지’가 아닙니다. 그것은 먼저 나의 마음을 점검하게 합니다. 비판의 말과 태도 속에 숨겨진 자랑, 오만, 자기합리화의 감정을 알아차리게 합니다. ‘내가 옳다’는 확신 속에서 타인의 흠집만 찾으면 우리는 진정한 배움의 길을 잃고 말 것입니다. 반대로 남의 약점을 공격적으로 파고들 때, 우리는 같은 약점을 반복하는 위험에 노출됩니다. 세상 말에 ‘욕하면서 배운다’는 말이 있듯이 비판의 대상이 되는 이의 부끄러운 점을 들추어내는 순간, 우리는 상대를 낙인찍고 스스로를 정당화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진짜 지혜는 상대의 실수를 들춰내기보다 그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지 생각하는 데 있습니다. 건전한 비판은 새로운 길을 모색하게 하는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목적은

상대의 인격을 모독하거나 진영논리에 매몰되어 공동체의 발전을 저해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비판은 다음의 원칙 속에서 사용될 때 건전한 힘을 발휘합니다. 첫째, 막연하게 비판을 위한 비판이 아니라 구체적인 문제의 원인과 개선 방향을 제시해야 합니다. 둘째, 겸손한 자세를 가지고 자신도 같은 약점을 가질 수 있음을 인정하고, 상대의 처지에서 생각하려는 역지사지의 마음가짐을 유지해야 합니다. 셋째, 일방적 지적이 아니라 대화와 협력을 통해 공동의 선을 추구해야 합니다. 세상에 모든 것을 다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도 없습니다. 대화를 통하여 서로가 성장하고 발전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상대방이 잘한 것에 대하여 박수를 보낼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칭찬은 동기를 부여하게 됩니다. 상대의 허물을 끝없이 파헤치기보다, 이를 덮어주고 보듬어주는 마음이 진정한 사랑의 실천입니다.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태도는 극한 대립의 벽을 허물고 상생의 길로 나아가게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서로를 판단하지 말고, 먼저 자신의 문제를 살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비판이 의도적으로 상대를 공격하거나 분열시키는 도구가 되지 않도록 끝까지 경계해야 합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 안의 사랑과 자비가 비판의 독을 해독하는 힘이 될 것입니다. **상화평 목사**

# 하나님이 좋으시면 그걸로 됐습니다

몇 해 전, 하나님은 나를 철저한 훈련의 길로 내모신 적이 있다. 오래 교제한 연인과의 이별, 그로 인한 부모님과 의 갈등, 이직으로 인한 스트레스, 함께 일하는 사람과의 끝없는 오해와 다툼 등, 도저히 내 힘으로는 해결할 기미도 보이지 않는 어둠의 시간들이었다. 하나님의 뜻을 알 길도 없었고, 이해할 수도 없었지만 그저 기도만 계속했다. 그런데 문제는 기도하면 할수록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의 뜻이 너무 달랐다. 내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께 순종되지 않고 계속 사람의 뜻이 옳다고 소리치고 있었다. 그렇게 하나님과의 지리한 대치가 계속되었고, 결국 두 팔 들고 내 의지가 꺾이며,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길로 인도해주세요’라는 기도가 나오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기도가 쌓여 언제나 그렇듯 하나님은 모든 상황을 합력해 선을 이루셨다.

지금 생각해 보면 그 고난의 끝에 받은 축복을 알기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간증할 수 있지만, 그 당시에 내가 걸던 그 길은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땐 광야였고, 가시밭길이었다. 그러나 내 눈에 보이는 광야가 하나님 보시기엔 보석밭이고, 나에겐 가시밭길을 걷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천국으로 가는 길이었음을 감사함으로 고백한다. 우리는 100%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 삶의 과정 과정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 만나는 그날까지 승리해 나갈 수 있기를 기도하며, 우리가 걸어가는 길은 결국 우리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 보시기에 좋으시면’ 그걸로 되었음을 믿음으로 선포한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은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 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23:10). **김경현**



:: 빛과 소금 ::

:: 낮은 울타리 ::

# 천국 소망

성경은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라고 표현하며 이 세상이 삶의 최종 목적지가 아님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 그러나 이 짧은 인생 속에서도 우리는 참으로 많은 일들을 경험한다. 하나의 문제가 해결되면 또 다른 어려움이 찾아오고, 크고 작은 산들을 넘으며 때로는 하나님께서 왜 이러한 도전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지 묻게 된다. 얼마 전, 나는 심한 결막염으로 한쪽 눈이 심하게 부어 제대로 뜨지도, 보지도 못하고, 가려움과 통증으로 2주 넘게 고생했다. 덕분에 평소보다 기도를 더 하게 되고, 그동안 건강한 눈으로 살아온 것이 얼마나 큰 은혜였는지 깨닫게 되었다. 이제 다 나은구나 싶을 때쯤 남편이 또 장염에 걸리며 며칠 동안 먹지도 못하고 일하는 모습이 참 안쓰러웠다. 이런 일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가정, 직장, 교회, 인간관계 등 다양한 영역에서 끊임없이 크고 작은 어려움들을 겪게 되고, 때론 마음이 상하고 낙심이 되기도 한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시간이 지나고 보면 결국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해결된다는 사실이다. 그 과정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더 바라보고 더 의

지하게 되고, 겸손해지며, 경험해본 일들에 대해서는 자신감이 생기고, 비슷한 일을 겪는 사람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줄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도 한다.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문제들을 허락하신 이유는 이 땅이 아닌 천국을 소망하게 하기 위함임을 깨닫게 되었다. 만일 우리가 아무 문제 없이 늘 평안하고, 건강하고, 부유해서 부족함 없이 살아가게 된다면 과연 이 땅에서의 삶보다 저 천국을 사모하고 소망하는 마음이 생길까?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 있을지라도 나보다 더 크고 깊으신 하나님의 완전하신 뜻이 있음을 믿고 주어진 환경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다면, 어느덧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한 우리 모습을 아버지께서 기뻐하시지 않을까. 목사님께서도 항상 ‘문제를 친구 삼으라’고 말씀하신다. 우리 앞에 놓인 문제들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게 하는 디딤돌이며, 우리 믿음을 정결하게 하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더욱 확고하게 하는 도구이다. 오늘도 우리의 시선을 하늘에 두고 천국 소망 안에서 하루하루 믿음으로 걸어보자! **송지혜 집사**

# 하나님이 쓰시기 좋은 사람

학창시절에 운동회나 축제에 가면 간간이 나눠주던 팔찌가 있습니다. ‘슬랩팔찌’라고 부르는 이 팔찌는 원래 형태는 꽃꽂이처럼 펼쳐져 있지만, 손목에 톱 치면 착하고 감기는 금속 스프링이 들어간 팔찌입니다. 이 팔찌의 좋은 점은 펼친 상태로 보관하기도 쉽고, 휴대도 간편한데, 손목에 톱 치면 사용하는 사람의 손목 크기에 맞춰서 착 감기니 성별이나 연령대에 상관없이 모두가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의 손목에도, 어른들의 손목에도 잘 맞게 조정되어 착용되니 다양한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행사에서 단체 용품으로 자주 쓰입니다. 하나님은 하반기를 준비하는 저에게 이 슬랩팔찌를 떠오르게 하셨습니다. 교회 안에는 참 다양한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있는 주의 일의 형태도 참 다양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다양한 사람과 다양한 일들에 나의 형태를 바꿀 줄 아는,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기 좋은 그런 사람이 되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자기 고집대로 꽃꽂이처럼 서 있는 사람이 아니라 맡겨주신 상황과 영혼에 따라 모양을 바꿀 줄 아는 사람, 그리

고 손목에 맞게 착 감기는 팔찌처럼 말은 일에 따라, 만나는 영혼에 따라 나를 낮추고 맞추는 사람 말입니다. 예수님의 모습도 그러셨습니다. 잘못된 길을 걷는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 앞에서는 단호하시고 권위 있는 말씀으로 꾸짖으셨지만, 사회에서 외면받는 자들에게는 한없이 따뜻한 모습으로 다가갔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며 낮아져 섬기는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물론 저는 아직 부족해서 기도하다 보면 저 스스로는 아직 슬랩팔찌가 아니라 그저 딱딱한 막대기 같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손을 탁 치면 착하고 감기는 것이 아니라 그냥 딱딱해서 아프기만 한 그런 나무 막대기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마음처럼 저는 제가 슬랩팔찌 같은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 사랑하는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 그러셨던 것처럼, 저도 제가 맡은 영혼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나의 꽃꽂이 자아를 단숨에 내려놓고 나의 형태를 바꿀 수 있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쓰시기 좋은 사람이 되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 인생의 참된 복입니다. **장수정**

:: 내가 매일 기쁘게 ::

:: 귀를 기울이세요 ::

#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빵

얼마 전 대전에 방문하여 유명 빵집 '성심당'에 들렀다. 길게 늘어선 줄 속에서 '임산부 프리패스'라는 배려를 보며 어떤 곳인지 더욱 궁금해졌다. 긴 기다림 끝에 빵이 담긴 상자를 계산하러 가다 실수로 떨어뜨리고 말았다. 나의 부주의였고, 빵도 상하지 않아 그대로 구매하려 했지만, 직원은 아무 말 없이 새로운 빵으로 바꿔주었다. 이윤을 넘어선 진심 어린 배려에 큰 감동을 받았다. 성심당은 단순히 맛있는 빵을 파는 곳이 아니라, 이러한 서비스를 통해 고객 감동을 선사하고 있었다. 성심당은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

라"(롬12:17)는 말씀 위에 설립된 기업이다. 그날 만든 빵은 모두 소진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고, 남은 빵은 고아와 노숙인에게 나누며 이웃 사랑을 실천했다. 이러한 정신은 1987년 6월 항쟁 때 빛을 발했다. 시위대에게 빵을 나누어주었다는 이유로 검찰 조사를 받으며 폐업 위기에 처했지만, '우리도 그 빵을 먹었다'는 전의 경들의 증언 덕분에 성심당의 나눔이 모두에게 향했음이 밝혀지며 큰 감동을 주었다고 한다. 빵을 통해 섬김을 실천했던 창립자는 '본사는 무슨 일이 있어도 성당 옆에 짓는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었다. '하나님의 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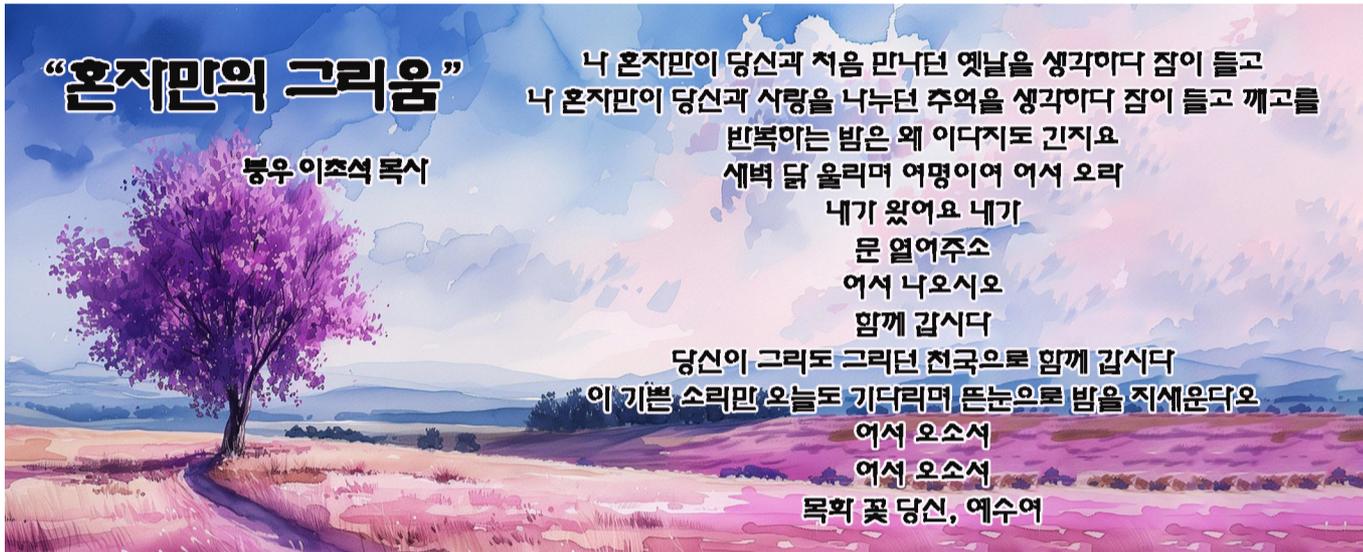
이 계신 집(聖心堂,성심당)'이라는 이름처럼, 하나님을 늘 가까이 모시고자 했던 창립자의 마음이 아니었을까 싶다. 이곳을 방문하며, 나 또한 하나님을 모시는 한 명의 교회로서 어떻게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것인지 생각하게 되었다. 나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빛을 잃지 않도록, 나를 통해 그분의 마음이 세상에 선명히 드러날 수 있도록 기록한 삶을 살겠다고 다시 한번 결단한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마 5:16). 전호정 집사

## 워커홀릭

"저는 주 7일을 일해요. 쉬는 시간에도 저는 일 생각밖에 안 해요. 저는 90살이 되어서도 AI가 되어서 회사를 경영할 거예요." 이는 4조 2천억 달러로 전 세계 시총 1위를 기록한 기업 엔비디아의 CEO 젠슨 황의 말이다. 엔비디아의 기업 가치는 한화 기준 5,850조 수준이며, 우리나라 코스닥과 코스피를 다 합친 금액의 2배 규모로, 이미 이 기업은 마이크로소프트, 애플을 넘어섰다. 엔비디아는 1993년에 설립되었는데, 2022년 챗GPT의 등장으로 AI 반도체가 급증하면서 전 세계 고성능 GPU(그래픽 처리장치) 시장에서 80%를 차지하고 있다. 지난 분기 이 기업의 수익률은 427% 증가했다. 이렇게 이 기업이 성공한 데에는 젠슨 황의 워커홀릭 정신도 한몫했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젠슨 황은 일하는 시간을 매우 즐기며 회사의 이익을 위해 직원 3만 명과 직접 소통하고, 업무 외 부수적인 사내 정치나 보고서 부분을 없애고 오로지 일의 능력을 높였다.

누군가가 그에게 질문했다. "젠슨 황 씨, 어떻게 이렇게 주 7일 내내 일할 정도로 좋아하는 일을 찾았나요?" 그러자 젠슨 황은 말했다. "나는 언제나 내가 하는 일을 모두 사랑했어요. 저는 과거 신문을 돌리는 일도, 식당에서 했던 접시 닦기, 손님들에게 서빙하는 일도 사랑했어요. 지금도 저는 주 7일을 일할 정도로 전 제 일을 사랑해요. 일을 사랑하면 모든 일들이 쉽고 재미있고 매일 행복합니다." 이 엔비디아의 대표를 보면서 총회장 목사님이 떠올랐다. 칠십 중반의 나이에 세계에 예수를 전하러 다니시고, 매일 상담하시고, 기도해주시고, 기도와 말씀에 집중하시는 모습은 예수님을 사랑하고 자신의 목회를 진정 사랑하는 모습이었다. 내가 하는 일을 진심으로 사랑하면 절대 지치지 않는다. 지금 하는 모든 일이 따분하고 지루한가? 총회장 목사님처럼, 젠슨 황처럼 내 일을, 내 학업을, 내 사업장을, 내 교회를 사랑해보자.

송현혜 생도



:: 치우치지 않는 저울 ::

## 예민한 사람은 고성능 레이더와 같다

고성능 레이더일수록 발열이 심하다. 즉 에너지 소비가 많이 되어 열을 식히지 않으면 과열로 고장 나게 된다. 예민한 사람에게 무조건 '기도해라, 생각을 바꿔라, 귀신이야'라고 할 게 아니라 상담과 운동과 나에게 맞는 다양한 열을 식히는 장치가 있어야 한다.

'예민하다'는 말은 종종 부정적인 뉘앙스로 들릴 때가 있다. 하지만 성경을 보면, 예민함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고성능 레이더와 같다고 할 수 있다. 이 레이더는 주변의 미묘한 신호들을 감지하고, 보이지 않는 영적인 흐름까지 포착하게 돕는다.

1. 예민함은 영적 감수성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 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히4:12)

하나님의 말씀이 예리하다는 것은, 그 말씀이 우리의 가장 깊은 내면까지 꿰뚫어 본다는 의미이다. 예민한 사람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던지는 영적인 진동에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다. 죄를 향한 경고, 은혜를 향한 부르심, 세상의 유혹 등, 영적인 신호들을 보통 사람보다 훨씬 더 잘 포착하는 것이다. 이러한 영적 감수성은 세상의 거짓과 유혹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역

할을 한다. 우리가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은 때로 상처나 고통 때문일 수도 있지만, 그 이면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심어두신 영적인 레이더가 작동하고 있기 때문일 수도 있다. 이 레이더가 세상의 잡음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더 선명하게 듣게 하는 것이다.

2. 예민함은 이웃 사랑의 통로이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롬12:15). 예민한 사람의 고성능 레이더는 다른 사람의 감정 상태를 더욱 섬세하게 감지한다. 주변 사람들의 기쁨과 슬픔, 고통과 불안을 더 깊이 느끼고 공감할 수 있는 것이다. 이는 단순히 감정적인 동요를 넘어, 이웃을 향한 진정한 사랑의 통로가 될 수 있다.

누군가 슬픔에 잠겨 있을 때, 예민한 사람은 그들의 눈빛이나 작은 한숨에서도 고통을 읽어내고 진정으로 함께 울어줄 수 있다. 또한, 다른 이의 작은 성공에도 크게 기뻐하며 함께 축하해줄 수 있다. 이러한 공감 능력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사랑, 즉 약한 자와 함께하고 소외된 자를 품는 사랑을 실천하는 데 큰 강점이 된다. 예민함이 단순히 개인적인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타인과 깊이 연결되고 하나님 나라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도구가 될 수 있는 것이다.

3. 예민함을 주님 안에서 더욱 다듬어야 한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빌4:6-7).

우리 목사님은 힘겨운 목회 가운데 어떻게 세계 지교회들을 이끌어갈까, 불도저같이 밀어붙이시면서도 예민하고 섬세하게 교단을 처리해 나가시는데 그 많은 스트레스를 어떻게 풀어갈까?

기도로만 풀어가시는 게 아니라 목사님에게 맞는 운동을 통해, 또 그림을 그리시고, 글을 쓰시고, 수석과 분재도 틈틈이 감상하시며, 목사님만의 스트레스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건강한 육체와 목회를 관리하고 계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스트레스를 어떻게 해결하고 계십니까? 어떤 이는 기도하고 귀신 쫓아서 해결하는 방법도 있지만, 극심한 우울증과 공황장애가 있다면 정신과 상담과 약물치료를 통해서 진정시키는 방법도 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수많은 방법 중 나에게 맞는 방법으로 영·혼·육이 병들기 전에 치유 받고 건강한 신앙생활 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최연식 목사

## 군산 전도 집회

- \* 장소: 군산 월명 체육관
- \* 일시: 10월 3일(금) 오후 3시
- \* 문의: 02. 533. 9191

## 서울성전 건축헌금 계좌안내

- 국민은행 026401-04-297823
- 예금주: 예수중심교회
- \* 계좌 송금 시 성함과 소속교구(교회) 순서로 기입해주세요